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 정

사 건 명 22-학인-00013 교사의 부적절 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신 청 인 ○○○(○○○○초등학교 □□□ 학생의 母)
피 해 자 1. □□□, 2. ◇◇◇(○○○○초등학교 6-3 학생)
피 신 청 인 △△△(○○○○초등학교 교사)

주 문

1.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가. 피신청인이 6학년 교육과정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고, 수업시간에 교실 청소를 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 휴식권, 건강권 등을 지속적으로 침해하였으므로, 피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 신분상 처분할 것을 권고한다.

나.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피해학생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와 이후 이러한 피해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특별인권교육 등 포함)을 수립하여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다. 해당 사례와 같이, 피해학생들이 2차 피해에 이르지 않도록, 전라북도교육청이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전라북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 적극적으로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2. ○○○○○초등학교장에게

가. 피신청인이 피해학생들의 인권(학습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휴식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 것은, 폭력과 차별에 대한 낮은 인권감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한다.

나. 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전라북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피해회복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구제신청의 개요

가. 접수일자: 2022. 6. 28.(화)

나. 신청인: ○○○(□□□ 학생 母)

다. 피해자: 1. □□□, 2. ◇◇◇ (○○○○초등학교 6-3 학생)

라. 피신청인: △△△ (○○○○초등학교 6-3 담임교사)

마. 신청요지

1) 피신청인이 피해학생 1.은 성폭력 가해자, 피해학생 2.는 피해자라고 허위로 말했다.

2) 피신청인이 피해학생들에게 부적절한(욕설, 폭언, 차별·비하) 발언을 하였다.

3) 2022년경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수업진도를 나가지 않고 미술수업을 주로 하고, 수업시간에 청소를 시켰다).

4) 피신청인이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벌칙을 주었다.(청소, 쓰레기 100~200개 줍기 등).

5) 학생들에게 교실에서 실내화를 신지 못하게 했다.

6) 학생들에게 사적 심부름(방학 중 학교에 나와 피신청인 짐 나르기 외)을 시켰다.

바. 조사 경과

○ 2022. 6. 28.(화) 구제신청 접수

○ 2022. 7. 4.(월) 학교, 학교폭력(아동학대) 사안보고

○ 2022. 7. 5.(화) 학생 대상 설문 실시

○ 2022. 7. 14.(목) 학생 대상 면담조사 1차

○ 2022. 7. 15.(금) 피신청인 1차 면담(■■■■ ■■■■■노조 위원장 동석)

○ 2022. 7. 25.(금)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른 학생 대상 면담조사(2차) 실시

- 2022. 9. 2.(금) 피신청인 면담(문답)조사 불참, 9. 7.로 일정 연기 요청
- 2022. 9. 7.(수) 피신청인 면담(문답)조사 불참(연락두절)
- 2022. 9. 14.(수) 피신청인 서면조사(답변서 제출 요구, 제출기한 9. 19.)
공문 발송. (피신청인, 면담 조사 일정 재요청)
- 2022. 9. 22.(목) 피신청인 면담(문답)조사 불참
- 2022. 9. 27.(화) 피신청인 서면답변서 제출
- 2022. 10. 17.(월)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

2. 관련규정

[붙임 1] 과 같다.

3.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피해자)의 주장

1) 신청인과 피해학생 1.의 주장

가) 신청요지 1) 관련

피해학생 2. 엄마가 6월 21일 아침에 전화했는데, ‘피해학생 1.이 피해학생 2.의 가슴을 만졌다고 피신청인에게 연락이 와서, 피해학생 2. 엄마가 피해학생 2.에게 확인해보니 그런 일은 없었다고 했다. 녹음본에 있듯이 평소 사실이 아닌 일을 사실처럼 얘기하여, 피해학생 1.을 계속해서 성추행범으로 몰아가고, 성적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남발하고 다니는 아이로 만들었다.

나) 신청요지 2) 관련

피해학생 1.이 점심시간에 축구를 하려고 친구들과 얘기했는데, 피신청인이 ‘그걸 왜 네 맘대로 정하냐’ 고 점심시간 활용을 못 하게 했다.

피해학생 1.이 급식을 먹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정말 이유없이 ‘먹고 나가서 쓰레기 200개 주워오라’고 명령하고, 잠시 있다가 다시 와서는 ‘쓰레기 주우러 가라’, ‘급식 빨리 먹으라’고 재촉했다. 이유없이 쓰레기를 주우라고 하니까 피해학생 1.이 화가 나서 급식을 먹다가 말없이 나왔는데, 친구 ▽▽이가 와서, 피신청인이 다시 급식실로 오라고 했다고 하여 갔더니, 피신청인이 피해학생 1.을 구석으로 불러 “시발 네가 뭔데 화를 내? 미쳤어?” 라고 귀에 대고 말했다.

1학기 초에 피신청인이 전담 급식일 때 피해학생 1.을 이유없이 맨 뒤로 보내 급식을 가장 늦게 먹게 했다.

피신청인이 문을 쾅 열고 오면서 피해학생 1.에게 “네가 한 것은 다 말했어?” 라고 소리 질렀다.

피해학생 1.이 상담실에서 피해학생 2.와 친구들이랑 했던 말들을 했다고 하자, 피신청인이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죽을래”라고 말하고, 피신청인이 발로 쿵쿵대면서 “나랑 니네 엄마는 안 무섭고 ▷▷▷(5학년 담임)은 무섭냐?”라고 말하고, “이것들이 쌍”,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라고 말하고 나갔다.

현장 체험 학습 가기 전 짝을 정하는 시간에 ◁◁와 피해학생 1.이 앉길 원하는데, 피신청인이 ◁◁는 주변 영향을 많이 받는 아이라 안된다고 하고, 반 아이들 앞에서 피해학생 1.에게 눈치를 주듯이, 놀리는 식으로 웃으면서 “□□□ 네가 현장체험학습 가서 애들 목 조르면 네가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보았다.

다른 친구가 수학여행 몇 일로 가냐고 피신청인에게 물어보자, 피신청인이 1박 2일이라고 하여, 학생이 “2박 3일로 가면 안 되냐”고 물어보자, 피신청인이 “□□이 같은 애랑 2박 3일 갈 수 있겠냐”고 웃으면서 말하고, “너희들이면 2박 3일 가는데, □□이랑은 못 간다”고 말했다.

졸업사진 찍는 날, 피해학생 1.에게 사과를 했는데(피해학생 1.만 따로 불러서) 다른 아이들 앞에서는 “니네 □□이 거짓말하는 거 잘 알면서 왜 □□이 편 드냐”고 말했다.

피신청인이 평소에 피해학생 1.과 아이들 간에 다툼이 생기면 다른 아이들 부모에게 전화해 ‘피해학생 1.이 아빠가 돌아가셔서 어려움이 있는 거’라고 말을 해왔고,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고 한다. 피해학생 1.은 울면서 자신이 아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상황에 휩쓸려야 하냐고 말했다.

다) 신청요지 3) 관련

영어 전담 갈 때, 반에 혼자 남아 있거나, 아니면, 무슨 일 있었는지 원고지를 썼다.

피해학생 2.가 다른 친구와 다뤘는데, 피해학생 1.과 ▽▽이가 피해학생 2.에게 장난치자, ▽▽이는 6-3반, 피해학생 1.은 4-4반, 아이들은 도서관으로 분리했다. 이날, 피해학생 1. 엄마가 피신청인에게 피해학생 1.이 차별당하는 것 같다고 전화했다.

체육대회 연습 중 ㉹㉹라는 친구가 서브 실수를 하자, 다음 교시에 다른 반 학생과 선생이 없을 때, ㉹㉹에게 “네가 나 병신 만든 거야”, “네가 나를 쪽팔리게 한 거라고” 말해, 3반 아이들 앞에서 ㉹㉹에게 망신을 주었다.

라) 신청요지 4) 관련

피신청인이 피해학생 1.에게 방과후에 지속적으로 멀티슈로 복도 창문을 얼룩없이 닦으라고 하고, 교실바닥 청소, 6-3 교실층 전체 복도 청소를 시켰다.

피해학생 1.이 쓰레기를 줍다가 200개를 못 줍겠다고 하니 “쓰레기가 없어?”라며 화냈다.

마) 신청요지 5) 관련

반에서 슬리퍼 착용을 못하게 해서, 애들 양말이 매일 더럽고, 청소 시간에 물걸레질을 하게 되면 젖게 돼서 많이 불편했다. 이후 피신청인이 슬리퍼를 샀는데 260~270 사이즈에 거의 일회용에 가까운 슬리퍼를 사줌. 피신청인은 구두와 운동화를 교실에서 신었다.

바) 신청요지 6) 관련

■■■■, ■■■■라는 친구가 처음엔 단지 선물로 선생님께 포켓몬 빵을 드렸는데, 그 후에 포켓몬 빵을 더 구해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아이들과 현금으로 포켓몬 빵을 거래했다.

택배가 오면 아이들을 시켜 반으로 가져오게 지속적으로 시켰다. 하루는 커피가 왔는데 ■■■■한테 줄 커피니까 잘 가져오라고 했다.(■■■■이가 포켓몬 빵을 구해준 보답)

2) 피해학생 2. 학부모와 피해학생 2.의 주장

가) 피해학생 2. 학부모 주장

다른 학부모의 아이(피해학생 1.)는 가해자가 되어 있는데 우리 아이는 피해자가 되어 있다.

피신청인이 거짓으로 피해학생 1.이 (피해학생 2.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줬다라고 몰아가,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되어 있다.

우리 아이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고, 다른 아이들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한다.

피신청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저한테 말했는데, 다른 학생이 녹취한 것이 있고, 피신청인에게 ‘녹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때 가서야 잘못했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빌었고, 학교에 요구해서 학생들과 분리되어 있다.

피신청인이 입만 열면 너무 거짓말이 잦고, 확인된 부분만 잘못했다고 하고, 증거 있는 부분만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시인하지 않는다.

다른 학생들도 피해가 많다. 다른 학생들에게도 “남아서 쓰레기를 100개 주워와라”고 말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다.

나) 피해학생 2.의 주장

피신청인과 사이가 조금 안 좋았는데, 남자애들이 교장실에 가서 이런 일을 알린 이후로, 자기 편이라고 믿고 자기 도와달라는 식으로 좋게 말해달라고 한다.

저를 불러 남자애들의 안 좋았던 행동들 다 쓰라고 했다.

피신청인이 남자애들 불러 제가 그런 짓을 당했다고 했을 때, 남자애 중 한 명인 ■■■가 녹음을 한 걸 제가 들었다.

피신청인은 그때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녹음 되어 있다.

피신청인이 제가 자기 편이라고 믿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수업 진도를 안 빼고, 단원을 건너뛰어 수업을 했고, 수학을 한 적이 10번도 되지 않는다.

쓰레기를 1,000개 주우라고 해서, 방과후 수학 수업 빼고 청소 1시간 하고 갔다.

일주일에 전담시간 빼고, 거의 전부 다 미술 수업을 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1차 면담 주장(2022. 7. 15.)

가) 신청요지 1) 관련

(‘피해학생 1.과 피해학생 2. 사이에 성폭력이 있었다’는 발언은 누구한테 정보를 들으셨나요?) 모든 사건이 이게 시작인데, 피해학생 2.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고 문자를 가지고 있다.

피해학생 2.한테 성폭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들었고, 녹취가 다 있다.

피해학생 1.만 찍은 게 아니고, 작년에도 ▽▽▽이라는 친구가 ‘조두순 보지를 터쳐버려.’라고 하여, 학교 폭력 사안이 크게 있었다. 그 자료를 못 찾았다.

개네가 늘 ‘눈감술’¹⁾ 한다고 하는데, 여자는 돌아가면서 하고, ◆◆◆도 피해자이다.

나) 신청요지 2) 관련

전담 수업에 몇몇 학생들을 전담 수업에 안 보내고 교실에 남게 한 것은 한 번 정도고, 이번에 사건 있을 때 친구의 전화가 와서, 뭘 써주면서 조금 늦게 간 적이 있었다.

학생들한테 ‘쌍’과 같은 욕설을 한 적 없다.

다) 신청요지 3) 관련

1) 술래가 눈을 감고 숨은 사람을 찾아내는 술래잡기 놀이

수업 진도를 안 나가고 미술 과목만 수업을 해서 진도가 다른 반들에 비해서 현저히 부족한 것은, 제가 그때 코빠가 부러지고, 눈이 너무 아파 글자를 못 본다고 친구(학생)들한테 이미 말을 했다. 친구(학생)들한테 사과말을 하고, 선생님이 좀 나은 다음에 진도를 나가자 그랬고, 관리자 선생님들한테도 말을 했다.

병가 왜 안 내냐고 하는데, 6학년이라서 기간제 쓰면 분위기가 해이해질까 봐이다.

이번에 병가 낼 때도 안과에서 진단을 했고, 모니터를 볼 수가 없었다.

2021년경 5-2반 담임을 맡았을 때 진도를 다 안 나갔다는 것은 트집 잡으려는 것이고 진도는 다 나갔다. 5학년 때 그랬다면 그때 얘기를 했어야 한다.

2022년 3월경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손 소독제를 바닥과 결상에 뿌리게 하고 교실 청소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청소는 쉬는 시간에 했고, 찢든한 본드가 교실 밑에 다 묻어 있어 그걸 떼고, 제가 주말에도 저희 가족하고 나와서 그걸 떼고 그랬던 것 같다. 그때는 코로나가 유행을 해 소독하고 그랬다. 학기 초에 실과나 창체 시간에 다른 반도 청소하듯이, 청소했다.

독서록은 성취 활동에 맞게 독서 활동을 한 거고, 독서 활동이 국어에 들어간다.

라) 신청요지 4) 관련

‘봉사’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에게 청소시키고 쓰레기를 줍게 하는 것은, 학생들이 친구한테 폭력을 가하거나 욕했을 때 쓰레기를 줍게 했다.

100개, 200개 줍도록 하지 않았고, 쓰레기 줍게 하면 5분 만에 주워

온다.

봉사-청소는 학부로 향의로 5월 27일부터는 하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쓰레기 큰 거 10개를 주워오라 하면, 티슈를 찢어 10개로 만들어, 그러면 '1,000개 해야겠네'라고 했다.

'봉사-청소'를 1시간 30분 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고, 아마, 자유시간처럼 보드 게임하고 뽕굴뽕굴하고 놀았을 것이다.

리코더를 불다가 뽕 소리를 내서 봉사-청소를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학생이 사회시간 대통령 빙고에서 소리를 내 봉사를 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마) 신청요지 5) 관련

교실에서 실내화를 못 신게 한 이유는, 학교 뒤에 바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친구들이 집에서부터 실내화를 신고 교실까지 온다. 코로나가 유행해서 코로나 기간 동안 청결을 위해서 아침에 와서 제가 소독제로 닦아놓고 그렇게 했는데, 학부모님이 말하셔서 바로 실내화를 주문해서 실내화를 신겼고, 그것도 사과드렸다.

2021년 5학년 때 실내화를 못 신게 한 이유는, 학생들이 바닥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제가 코로나가 유행할 때 다른 선생님보다 1시간 일찍 오고 1시간 늦게 가며 소독하고 했다.

겨울에도 실내화를 못 신어서 추웠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더워서 양말을 벗고 해서 양말을 신으라고 할 정도였다. 바닥이 난방이 안 돼도 애들이 막 뛰어다닌다. 전담이 3시간, 4시간 있어서 교실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 코로나여서 학교에 오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 학생들을 위

해 한 것이다.

애들은 교실에서 실내화를 안 신고, 저는 교실에서 구두를 신고 있는데 (교실에서 신는 구두는) 바깥에서 신는 구두하고 다르다.

바) 신청요지 6) 관련

저희 반에 전교회장이랑 회장단이 있어서 봉사 차원에서(전교어린이회 자치차원에서 봉사) 그리고 제가 다녔기 때문에 미리 끌어서 그걸 썼다. 제가 이 친구들이 되게 이빠서 5학년에서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과를 드렸다.

교사 개인 생리대를 구해오라는 심부름을 학생에게 시킨 건 기억 안 난다.

여학생들한테 컵 씻어오고, 먹을 물 떠오라고 하는 심부름은 기억이 안 나고, 어쨌든 아팠을 때는 부탁한 적은 있다.

개학 4일 전에 5-2반에서 6-3반으로 교실 옮기면서, 학생 4명을 불러 짐 옮기는 심부름을 시킨 것은 기억 안 난다.

다른 선생님에게 선물을 주기 위해, 작년 연말에 학생들한테 카드를 주고 다이소에 가서 선물 포장을 사오도록 한 후, 선물을 포장하도록 시킨 것은 기억 안 난다.

(학생에게 1,500원인 포켓몬 빵을 받고 5,000원을 주자 학생들이 빵을 구하러 다녔다는 주장) 저는 빵을 싫어하는데, 그 학생이 구해와서 그런 것이고, 여학생과 남학생 두 명이 와서 사줬는데, 교실에 그 빵이 있을 거고, 그러지 말라고 했다.

개인 택배 심부름은 애들 것(캔커피)도 같이 한 것이다.

●●●●, ◆◆◆◆, ○●○●, ■■■■ 학생과 면담하면 사실대로 말할 것

이다.

2) 서면 답변서 주장(2022. 9. 27.)

가) 신청요지 1) 관련

2022. 6. 20.경 제가 ○○○ 외 학생들을 면담한 이유는, 해당 아이들에게 일어난 상황을 파악한 후 이를 중재하기 위해 면담을 했고, 면담에서 ‘피해학생 1.이 피해학생 2.에게 성폭력(‘보지’라는 단어를 말하면서)을 하였다’라고 학생들에게 말한 것은, 해당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자 했다.

피해학생 1.이 피해학생 2.에게 성폭력을 하였다는 사실은 피해학생 2.가 담임교사인 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알게 되었고, 성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학생 1.이 피해학생 2.와 눈감술 놀이를 하다가 가슴을 만졌다고 피해학생 2.가 말했다.

피해학생 1.이 피해학생 2.에게 가해(성폭력)를 했는데,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 이후 피해학생 1.이 피해학생 2.에게 사과를 했고, 서로 괜찮다고 이야기로 잘 풀어 원만하게 합의되었다고 생각했고, 학교폭력 절차대로 처리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다.

나) 신청요지 2) 관련

피해학생 1.에게 급식 먹고 있는데 쓰레기를 주워오라고 하고, 피해학생 1.를 구석으로 불러 “시발 네가 뭔데 화를 내? 미쳤어?”라고 말한 적 없다. 피해학생 1.의 자리가 매우 더러워 쓰레기를 줍고 바닥을 닦으라고 지도했고, 절대 학생에게 욕설을 한 적이 없다.

피해학생 1.에게 제가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하면서 “죽을래”라고 말하고, 발로 쿵쿵대면서 “나랑 니네 엄마는 안 무섭고 ▷▷▷(5학년담임)은 무섭냐?”라고 말하고, “이것들이 쌍”,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라고 한 적 없다.

반 아이들 앞에서 피해학생 1.에게 눈치를 주듯이, 놀리는 식으로, 웃으면서 “□□□ 네가 현장체험학습 가서 애들 목 조르면 네가 책임질 수 있냐”고 말한 사실이 없다.

수학여행 관련하여 “□□이 같은 애랑 2박 3일 갈수 있겠냐”고 웃으면서 말하고, “너희들이면 2박 3일 가는데, □□이랑은 못간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체육대회 연습 중 서브 실수를 한 (박)■■■에게 3반 학생들 앞에서 “네가 나 병신 만든거야”, “네가 나를 쪽팔리게 한 거라고” 등 망신을 준 적 없다.

다) 신청요지 3) 관련

제가 2022년 2월 말경에 계단에서 굴러서 코뼈가 부러지고 눈이 다쳐서, 2개월 동안 눈이 잘 안 보이는 등 심하게 부상을 입어 수업진도를 제대로 못 나갔다.

2022년 1학기경 미술 수업을 주로 했는데, 미술 수업 방식은 유튜브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게 하고, 유튜브 영상에 따라 미술 작품을 만들게 했는데, 이러한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만드는 영상을 사전에 보면서 방법을 익혀놔야 짧은 수업시간에 효과적으로 작품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고, 마무리가 되어야 수업이 더 유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제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영상자료를 참고하였다.

미술 수업에서 사용한 유튜브 영상은 초등학교 고학년 교사가 미술 시간에 시청각 재료로 많이 보여주는 픽미 쌤 영상이다.

교사 교육과정에 의거해 수업했다. (진도를 나가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학년말까지 진도에 문제가 없었다. 교사의 자율권이 있다.

2022년 3월경 제가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손소독제를 교실 바닥과 결상에 뿌리고 물티슈로 닦게 하는 교실 청소를 시켰는데, 3월 초에는 교실을 함께 정리정돈 하고, 함께 생활할 공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활동이 자주 필요하고, 또한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청소 활동을 했다.

3월경에 6-3 교실 바닥이 찌든한 본드(오염물)가 묻어 있어 그걸 제거하는 청소를 했는데, 학생들이 손소독제를 교실바닥에 뿌려서 물티슈로 오염물을 닦고, 구두칼을 사용해서 긁어내는 청소를 2~3주 동안 한 것은, 위의 3월경 교실청소에 대한 답변과 같은 맥락으로, 호흡기, 피부 질환 등에 자주 노출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청소활동을 했다. 또한, 이러한 활동들을 함께, 또 스스로 함으로써 협동심과 자주성을 길러주고자 했다.

라) 신청요지 4) 관련

피해학생 1.에게 방과후에 지속적으로 물티슈로 복도 창문을 얼룩없이 닦으라고 하고 교실바닥 청소, 6-3 교실층 전체 복도 청소를 시킨 적 없다.

“봉사”로 청소를 시키는데 봉사 기간(1일, 1주일, 1달)은, 학기 초에 학급세우기 활동의 일환으로 학생들과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규칙이 무엇이 있을지 얘기하며 정한 내용이다.

마) 신청요지 5) 관련

제가 6-3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슬리퍼 착용을 못 하게 해서, 애들 양말이 매일 더럽고, 청소시간에 물걸레질을 하게 되면 젖게 돼서, 많이 불편했다고 하는데, 이는,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여 더욱더 교실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슬리퍼를 벗고 교실에서 생활을 하게 했으나, 이에 관련한 민원이 발생하여 바로 슬리퍼 착용을 하도록 지도했다.

이후, 제가 학생들에게 260~270 사이즈에 거의 일회용에 가까운 슬리퍼를 사준 것은, 학생들 생활 특성상 분실되거나 부서지는 경우가 많아 여분의 슬리퍼를 구비하여 필요한 경우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것이다.

학생들에게는 슬리퍼 착용을 못 하게 하였으나, 저는 교실에서 구두를 계속 신었다고 하는데, 그런 적 없다.

바) 신청요지 6) 관련

학생들과 현금으로 포켓몬 빵을 거래한 적 없다.

학생들에게 반으로 택배를 가져오게 지속적으로 시킨 것은, 교육적 목적으로 함께 사용할 물건을 교실로 함께 가져오며 서로 도와가는 활동을 해보도록 지도하고자 한 것이다.

택배로 온 커피는 체육대회 준비 및 운영에 많은 도움을 준 선생님들에게 드릴 물품이므로, 친구들이 가져오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 교육적인 목적으로 함께 옮기는 활동을 한 것이고,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인 〰〰〰에게 해당 학부모의 허락을 받고 커피 음료를 선물했다.

작년(2021년) 연말에 학생들에게 (신용)카드를 주고 다이소에 가서 선물포장을 사 오라고 하고, 선물 포장을 시키는 등의 심부름을 시킨 것

은, 학생들과 평소 깊은 유대감을 가진 선생님이 계셨는데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게 되셨고, 학생들과 함께 선물을 하고자 하는 의미로 학급 운영 물품을 사는 김에 선생님께 드릴 선물과 관련된 것을 함께 사도록 했다.

제가 심각한 부상(코뼈 부상 등)을 입었던 시기로 도움이 필요하여 평소 유대감이 잘 형성되었던 학생들과 애기한 끝에 서로 허락을 구한 상황에서 여학생들에게 먹을 물을 떠오라고 하거나, 물컵을 씻어오는 등 도움을 요청했었다.

2022학년도 개학하기 4일 전에 5학년 2반 교실에서 6학년 3반 교실로 이사를 하며, 학생 4명을 불러서 일을 시킨 것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평소 유대감이 있던 학생들과 애기하여 서로 허락을 구한 상태에서 있었던 일이다.

다. 참고인 주장

1) ♡♡♡(▽▽▽ 학생 보호자)의 주장

▽▽▽이라고 성을 붙이며, ‘니가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겠지?’ 하며 신고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친구들과 다 떨어뜨려 놓으며 놀지 못하게 했다.(□□이랑 놀면서 ▽▽이가 변했다고 놀지 말라고 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너는 유학도 못 갈 거라고 돈이 많아야 된다고 무시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트집을 잡으며 경위조사서를 쓰게 하고, 글

씨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쓰라고 강요해서 6번이나 쓴 적이 있다.

피신청인은 자기만의 벌칙을 세워서 맘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봉사합니다”라고 무시하면서 벌을 주었다.

봉사를 안 한 친구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모든 아이들에게 기분대로 행동했고, 기분 좋은 날에는 소리지르지 않고, 기분 나쁜 날에는 엄청 화를 냈다고 한다.

아이들을 한명 한명 따로따로 불러서 끝난 일을 또다시 들춰서 혼내고, 으박지르며 혼냈다.

회장 ㉹㉹에게 다른 친구 흉을 보며 체육대회 때에는 서브 못 넣는다고 따로 불러 화도 냈다.(그것도 못 하냐고 무시).

㉹㉹에게 “너가 나 병신 만든 거야?”라며 소리쳤다.

피해학생 1.을 따로 불러서 4학년 4반 교실에서 혼자 있게 하고, ▽▽도 혼자 1시간을 빈 교실에서 독서록을 쓰도록 했다. 그때 다른 아이들은 모두 도서실에 갔을 때이다.

아니 ‘쌍, 이것들이, 미친, 내가 여자샘이라 만만하게 본 거야?’라며 일상을 이런 언어들로 대해서 학교에 가기 싫었다.(그래서 한판 붙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났다 - 아이 왈).

높은 하이힐을 신고 교실에 들어와서 넘어진 적이 있는데, 당연히 멍이 들어 아파 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때문에 아프다고 짜증을 냈다.

자주 ‘머리, 머리, 약 기운’이라고 이해해 주라고 하면서, 수업도 안 하고 일상이 미술이었다. 공부방을 안 다녔다면 나는 바보가 됐을지도 모르겠다.

엄마가 학교에 다녀가셨고, 피신청인이 사과를 하긴 했지만 쇼처럼

느껴진다.

엄마 아빠가 계시면 잘하고,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원래 어쩔 수 없다’고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멋대로 한 적도 있다.

아이들에게도, 교무실에서 3명의 엄마와 교장, 교감샘 앞에서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아버렸던 행동은,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아이들이 흉내를 낸다고 한다. 또한, 교사로서 명품으로 화려한 포장으로, 머리띠, 목걸이, 귀걸이, 가방, 옷, 신발까지 여자아이들은 명품 노래를 만들었고(구찌, 샤넬, 루이비통), 무엇보다 ○○초 아이들을 거지처럼 취급하신 것이 정말 맘이 아프다.

2) ■■■ 학생의 주장

▽▽▽이와 오◁◁한테 피해학생 1.과 붙어 다니지 말라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리고, 몇 일 후에 ▽▽▽에게 ‘너 명예훼손으로 신고한다’고 말했다.

내가 우리 반에서 남부회장인데, 회장단끼리 하는 일을 항상 나만 빼고 다른 남자 애들을 넣어서 한다.

배구 시합 때 ■■■가 서브를 넣다가 잘못했는데 ‘너가 날 병신 만든 거예요’라고 했다.

몇 일 후에 ㅎㅎㅎ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ㅎㅎㅎ 넌 머리가 돌아가긴 해?’ 라며 화냈다.

3) <<< 학생의 주장

선생님을 만난 첫째 주에 첫 만남이 중요하다고 조금만 떠들어도 첫 인상이 중요하다고 하고, 친구랑 다뤘을 때 기분이 좋으면 기분 좋은 표정으로 ‘봉사하세요’ 라고 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굵은 목소리로 ‘봉사’라고 한다.

회장단 같이 높은 직급인 애들에게는 너무 심하다.

피해학생 1. 과 애들이 싸웠는데 선생님이 ‘쌍’이라고 했다.

전교회장 ㅁㅁ에게 ‘니가 나 병신 만드는 거야’ 라고 하고, ‘생각이 없냐’ 라고 했다.

4) 피신청인 추천 학생들의 주장

신청요지 관련	피신청인 추천 참고인 학생들의 주장
신청요지 2)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안조사서는 다 써봤음. 애 들 다. • 사안조사서를 쓸 때, 제일 심했던 게 (4학년 애들이 수영장 가서 애들 없다고) 피해학생 1.을 4-4반에 방치함. 그래서, 전담 시간에 피해학생 1.을 데리고 오라고 했음. • 싸우거나 욕하면 봉사 당하고, 6-3반에서 제일 많이 당한 친구는 피해학생 1.임. • 저희를 혼내는데 피신청인이 ‘자기 인맥이 막 넓다고, 너희들이 나보다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 하고, ‘여기서 부자가 누구냐고?’ 말했음. • “근데, 저희는 귀한 딸 아닌가요.”
신청요지 3)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학년 때는 국어도 한 권 남아 있고, 수학도 3분의 1 정도 진도 남았음. • 진도가 안 나가는 것은 미술 때문임. 6학년 지금도 피신청인이 (수업) 하셨을 때 진도 안 나갔음. • 원래 공부하기 싫었는데, 미술만 하니까 공부가 하고 싶음. • 미술을 알려주진 않고, 유튜브 영상 반복 재생 틀어놓고 만들라고 함. • 검사도 회장단이 함. 프린터로 뽑아야 되는 숙제물도 학생들이 프린터실에서 종이 넣고 뽑아옴. • 독후감 검사, 칠판에 독서록 쪽수 쓰는 거도 저희가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에는 수업 진도 안 나가고 청소를 했고, 아주 조금 진도 나갔음. • 3월에 교실 청소를 일주일 정도 했음. 4반 애들이 '왜 이렇게 청소 많이 하나?'고 물어볼 정도였음. 개학하고 일주일 동안 청소는 매일 했던 거 같음.(그렇게 청소를 일주일 내내 하루에 두 시간씩) • 물티슈로 교실 닦을 때 손 소독제 뿌려서 하고, 바닥에 붙어 있는 잘 안 지워지는 거 땔 때는 사물함에 있는 구두칼로 했음. • 학교가 학교 같지 않고 집 같음.
신청요지 4)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봉사는 피신청인이 마음에 안 들 때, 기분 안 좋으실 때, 그냥 보이는 사람 시키고, 2주, 한 달도 있음. • 6-4반, 4-4반까지 복도 전체를 제대로 안 하면, 쓰레기를 30개, 50개 주 우라고 한함. • 지각하면 봉사하라고 하고, (쓰레기 줍는 거는) 100개 아니면 150개였음. • 종이를 찢거나 지우개똥 만들어서, 그거 쓰려고 모아 놓음. 미술 시간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몰래 찢어서 (쓰레기) 있는 척했음. • 수업 시간에 리코더 불다가 뽁 소리 내면 봉사함. • 기분 좋으면 '뭐 그럴 수 있어요. 잘했어요' 이러는데, 기분 안 좋을 때는 '봉사' 함. • 사회 시간에 대통령빙고 했을 때, 이지우가 빙고라고 소리 내서 봉사 당했음. • 봉사하면 1주일 바닥 청소를 학교 끝나고 시킴. • 교실은 깨끗해서 먼지도 안 나오고, 쓸 게 없어서 연필심 지우는 척하다 감.
신청요지 5)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학년 때는 맨발로 그냥 실내화 벗고만 오라고 했는데, (실내화) 신는 게 더 좋음. • 실내화를 안 신는 것은 (교실이) 도로 더러워지고, (학생들이) 싸울 때 실내화 발로 차면 더 아프다고 함. • 피신청인은 구두나 아니면 크록스 같은 거 신음.
신청요지 6)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택배도 교실에서 쓰는 건 괜찮은데, 자기 것도 가져오라고 함. 택배 심부름 중 하나는 '에플워치 다는 줄'이었다. • 물 떠오는 심부름과 컵 씻는 심부름은 주로 여학생들이 함.(◆◆◆ 컵, ●●● 물). • 물 떠오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녀도 아니고, 집에 일도 아니고 왜 나를 시키는지. • 저희 둘이 피신청인 카드로 다이소 가서, 상자 사서, 피신청인이 주신 간식으로 다른 선생님 줄 선물을 거의 일주일 걸려 만들었는데, 개학하고 오니까 그걸 안 주시고 그냥 여기 쳐박아져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신청인이 머리 아프시다고 해서 쌍화탕, 두통약 심부름은 해봤는데, 5~6월쯤 생리대 심부름은 처음이었음. 피신청인의 크기도 있고, 개수도 물어봐야 하는데, 한 번에 말 안 해줘서 세 번을 물어봐서 너무 좀 그랬음. • 포켓몬 빵을 피신청인도 두 달 내내 구해달라 하고, 애들이 구해서 피신청인 드리면 돈을 주는데 5천 원도 주었음. 수고비까지 해서 이거 받아도 된다고 했음. • 피신청인 이사짐을 개학 4일 전에 옮겼는데, 피신청인이 미술하니까, 물건이 엄청 많아서 그걸 옮기는데 ●●, ◆◆, ☒☒, ☐☐ 이렇게 네 명 이랑 ▷▷▷ 선생님이 했음. • 피신청인 짐 옮길 때, 피신청인이 “일찍 만날 수 있을까요?” 하면서 11시에 만나자고해서, 저희가 10시 반에 만나서 놀고 있었는데, 저한테 ‘1시에 만나요.’ 라고 했음. 일단 처음이니까, 저는 ‘네’ 하고 애들끼리 편의점 가서 놀고 있었음. 피신청인이 3시인가, 4시에 만나자고 해서 또 기다렸음.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나도 안 와서 “선생님 언제 오세요?” 전화했는데, 피신청인이 “선생님 지금 코피가 나서 곧 갈게요” 이랬는데 피신청인은 세중에 사심. • 한 오후 5시까지 기다리다 피신청인에게 “선생님 어디 오세요?” 이것도 안 물어보고, “선생님 저희 갈게요” 이러고 왔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불렀음. 그리고 또 안 오셨음. 약속한 시간은 1시인데 5시에 오고. 우리가 4일 동안 한 번에 짐을 옮긴 게 아니고 두 번이 핑크났음. • 피신청인이 코가 다치시면 머리가 이렇게 아프실 수도 있어서, 처음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코가 다쳤다고, 눈도 멍들었다고, 5월, 6월까지 우려 먹었음. ‘선생님 코가 안 좋아서 택배 좀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라고 계속 말했음.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신청인 옷이 다 명품이거나, 약간 다른, 선생님답지 않은 옷임. 보통 화장하고 머리띠나 그런 건 괜찮은데, 옷도 셔츠나, 청바지나, 치마도 긴 거나 그런건데, 피신청인처럼 엄청 짧은 거에 망사 스타킹을 신지는 않음. • 피신청인 구찌 신발인가, 샤넬 같은 거, 사물함에 열어보면 딱 있고, 피신청인 뒤편에 사물함 또 있음 거기에 피신청인 신발이랑 명품 있음. • 저희 사물함이나 한 칸 더 늘려주시지, 피신청인 물건만 세줄, 세줄 아홉 칸이고, 아래 세 칸에는 신발 같은 걸로 있음. • 크룩스 신어도 반짝반짝 거리는 거 겁나 많음. 엄청 많음.

라. 설문조사 내용 요약

신청요지 관련	설문조사 내용
신청요지 1)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월 쯤 무슨 일 있어서 선생님이 애들 부르다가 들은 이야기 A가 선생님한테 불려갔을 때 B가 선생님이 남자애들을 성추행범이라고 물고간다고(그중에 제일 충격적인 건 누가 A 보즈 찢어버린다고) 근데 A는 들은 적도 없고 당한 적도 없다고 했음. • 학교 끝나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애들 데리고(이때 여자애하고 다른 애들하고 부딪혀서 싸웠음) 와서 남자애들은 성추행범이라고 했다는 걸 들었음. • 있지도 않은 일을 제게 말하고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가슴이 만져졌다. 애들에게 보지를 찢어버린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선생님께서 소문을 내셨음.
신청요지 2)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불만을 학생들에게 화를 내며 화풀이하셨음. • □□□에게 5~6월경에 욕설을 하였음. • 쌤이 □□□ 학생에게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남아서 폭언, 욕설했음. • 선생님이 □□□이랑 반장한테 주로 혼을 많이 냈음. 봄 4월~6월 중 그 사이부터. • 봄쫘에 여자애랑 다뤘는데 그때부터 선생님이 나한테 엄청 화내고 내 친구한테는 아니 쌍 이렇게 화를 내고, 야 너 죽을래 너 미쳤니, 이렇게 화내고 손찌검하고 욕설 등등 하고 나한테는 여자애 엄마한테 전화오면 니가 혼날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야 이렇게 큰소리 냈음. • 어떤 남자애가 장난을 쳤는데 심한 장난도 아닌데 “이 ××(이름) 머리가 돌아가?” (아직 쓰지 못한 게 매우 많습니다. 그치만 기억이 잘 안 나거 나 쓸 시간이 없어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선생님이 전교회장인 ㄹㄹ에게 병×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음. • 2022년 4월, 급식실에서 아무 이유없이 구석에서 미쳤냐는 말을 들었음. • 2022년 6월 20일 9시 20분 빈 교실에서 죽을래? 이것들이 쌍 등의 말과 협박을 당했음. • 2022년 봄~여름 사이, 선생님이 욕설 조금, 차별·비하 발언을 다른 학생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음. 긴장되었음. 약간 무서웠음. 욕설은 생각이 나지 않고 다른 학생과 비교하며 혼내는 것을 보았음. • 선생님이 나한테 머리가 돌아가냐고 했음. • 친구한테 ‘내가 날 병신으로 만들 거야?’라고 했음. 무서웠음. • 쌤은 우리에게 감정 쓰레기통이었음. • 나랑 친구 2명 있었는데 선생님이 야 너 내가 개랑 놀지 말라했지 그러

	<p>면서 엄청 친한 친구랑 떼어놓으려고 선생님이 개랑 붙어있으면 엄청 화를 냈고 난 그때 친구 2명을 잃는 줄 알았고 무서웠음.</p>
신청요지 3)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리고 수업진도를 안 나가서 5학년 때도 다 못하고 끝났음. • 수업진도를 나가지 않고 미술만 했음. • 수업진도 안 나가고 미술활동만 많이 시켰음. • 그다음 수업 진도를 거의 잘나가지 않고, 거의 미술 활동만 했음. • 수업 진도를 나가지 않고, 미술만 항상 했음.
신청요지 4)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이 기분이 좋을 땐 좋은 말로 봉사라고 하거나 봐주는데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봉사! 이렇게 말함. • 선생님은 벌을 봉사(반 청소)로 줌. 원래는 하루, 심하면 1주일~한 달 톡하면 봉사임. • 말을 안 들었다고 쓰레기 1,000개를 줌고 가라고 하셔서 방과후 한 개를 빼고 청소를 다하고 검사를 받고 갔음. • 조금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약간의 기분 나쁜 말과 청소를 시켰음.(아이들 대부분) • 지각을 하면 1번 할 때마다 1번씩 봉사하고, 그리고 친구와 다툼을 하면 1주~ 1달 정도 봉사를 함. • 8시 50분을 넘어서 들어오면 교실에 남아서 교실 청소를 함. 또 친구들과 싸우면 1주 동안 청소를 했다 크게 싸우면 1달 동안 청소함. • 봉사는 학교가 끝나고 반을 청소하고 감. • 학교 끝나고 1시간 30분 동안 나 혼자 청소했음. • 아무 이유 없이 1시간 30분 동안 청소를 시켰음. • 수업 시간에 리코더 불고 있었는데 애들 몇 명만 1시간 동안 청소를 시켰음. • 3월 둘째 주 사회 빙고 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나이스라고 했고 학교 끝나고 봉사를 했음.
신청요지 5)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부터는 실내화를 벗고 양말로 반을 다녔음. • 교실 내에서 실내화를 신지 못하게 함(또한 다른 실내화 지급 x) • 선생님은 힐 같은 거나 슬리퍼 신었는데 저희는 반에서 맨발로 다녔음.
신청요지 6)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이 먹을 물과 컵을 저희보고 씻고 물 떠오라고 거의 매일 시킴. • 5월쯤에 포켓몬 빵을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께 주면 선생님이 2배의 돈을 주신 적도 있음. • 5월달에 포켓몬 빵이 유행하던 때 포켓몬 빵을 선생님께 사다 주면 2배로 돈을 줬음 • 남자는 화풀이, 여자는 노예.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가 오기가 싫고 불편하고 선생님은 보고 싶지 않았음. • 학교 오기 불편함, 학교에 선생님이 올 때 오늘은 누가 찍힐지, 혼날지

	<p>생각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 듣기, 봉사, 부조리, 선생님의 부조리, 친구들과 떼어놓기, 공개적으로 비판, 놀림, 협박, 거짓 사과, 뒷담 때문에 학교가 오기 싫고 죽고 싶었음. • 가만히 있다가 친구랑 놀고 있으면(싸운 거 아님) 경위 조사서를 썼음.
--	---

※ 상세내용은 [붙임 2]와 같음.

마. 사건 관련 기록

- 1) 피신청인과 학생들 면담 녹취(6. 20.) 기록(피신청인 제출)
- 2) 경위 조사서(피신청인 제출)
 - 가) 피해학생 2. 자필 사건경위서
 - 나) ●●●● 학생 자필 진술서(2022. 5. 11.)
 - 다) 성명 미상 학생의 자필 진술

바. 학교 자료

- 1) ○○○○○초등학교 2022학년도 1학기 교육 일정

2022년 3월 2일(수) ~ 7월 25일(월) 까지 수업일은 100일이다.

피신청인은 3월 2일(월) ~ 6월 27일(월)까지 6-3 담임교사로 학생들을 교육하였다.(※ 6월 27일(월) 교원인사자문위원회 개최, 교육과정 운영 부실 등을 이유로 담임 교체 결정)
- 2) 학교 사안조사서의 6-3반 학습 진도 확인(2022. 7. 4.)

교육과정 진도 상황은 다른 반은 1학기 진도 거의 다 나갔으나, 3반은 전체적으로 반절 정도씩 나갔다.

국어는 총 9단원 중 1~5단원, 수학은 총 6단원 중 1, 4, 5단원, 사회-1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은 6~50쪽까지, 사회-2.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78~98쪽까지 나갔다.

과학은 2, 3, 4단원은 전담이 하고, 1, 5단원은 안 했다. 실과, 도덕은 안 했다.

4.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먼저, 위 당사자와 참고인의 주장, 관련 자료 내용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

1) 2022. 6. 20.경 피신청인이 ○○○ 외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피해학생 1.이 피해학생 2.에게 성폭력(‘보지’라는 단어를 말하면서)을 하였다고 말했다.

2) 피신청인이 피해학생 1.이 피해학생 2.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했다.

3) 피신청인이 “피해학생 1.이 ‘변태년’, ‘보지를 찢는다’라는 같은 말을 했다”라고 다른 학생들에게 말했다.

4) 피신청인은 2022학년도 1학기 수업 진도를 반절 정도 나갔고, 실과와 도덕은 수업을 하지 않았다.

5) 피신청인은 2022학년도 1학기 교과진도 운영시간에 미술 활동을 주로 했다.

6) 피신청인은 2022년 1학기경 미술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유튜브 영상(‘픽미쌤’ 영상)을 보여주고, 따라 만들게 하였다.

7) 피신청인은 2022년 3월경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다.

8) 피신청인이 ‘봉사’라는 명칭으로 학급의 학생들에게 청소 벌칙을 주

었다.

9) 피신청인은 2022년 상반기경 여학생들에게 먹을 물을 떠오거나, 물컵을 씻어오는 등의 심부름을 시켰다.

10) 피신청인은 2022학년도 개학 4일 전부터 학생 4명을 불러 피신청인의 교실 이사짐을 나르도록 했다.

나. 판단

1) 총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12조는 신체의 자유, 제31조에서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은 학생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 교육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 제4항은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하였고, 같은 조, 제4항은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원칙)는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는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는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에서는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률 등을 살펴보았을 때,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존재로서,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는 존재이므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할 때,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피해학생 1.과 2.의 성폭력 가·피해에 대해

피신청인은 위 인정사실 1), 2), 3)항과 같이 피해학생 1.이 피해학생 2.에게 성폭력 피해를 주었다고 다른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공개적으로 말했다.(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발언이 구제신청 사건의 계기가 되었다.)

먼저, 피해학생 1.이 피해학생 2.를 성폭력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은 면담조사와 서면 답변서에서 ‘피해학생 2.에게서 성폭력이 있었다는 진술을 들었고, 피해학생 2.가 문자를 보냈다’, ‘성폭력의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학생 1.이 피해학생 2.와 눈감술 놀이를 하다가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사건경위 기록을 제출하였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사건경위 기록 중 2022. 6. 23. 기록을 살펴보면 “아침경 피해학생 2.가 죄송하다며 사건경위서를 써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피해학생 2.의 자필기록(붙임 3. 자필진술서)에는 성폭력 피해에 관한 내용은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에 더해, 피신청인은 피해학생 2.가 자신에게 성폭력 피해를 문자 메시지로 알려줬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인 해당 문자메세지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편, 피신청인이 제출한 눈감술과 관련한 기록(붙임 4. 학생자필기록)을 살펴보면, 2022. 5. 11.경 피해학생 1.이 학급의 친구들과 눈감술 놀이를 하는데, 피해학생 1.이 실수로 ◆◆◆ 학생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신체접촉하였다는 내용, 피해학생 1.에게 여학생들이 사과하라고 하는 내용, 피해학생 1. 울었다는 내용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이, 2022. 5. 11.경 눈감술 놀이와 관련하여, 자세히 기록한 자료로 볼 때, 피해학생 1.이 눈감술 놀이를 하다가 피해학생 2.의 가슴을 만졌다면, 위 2022. 5. 11.경 기록과 같이 사건경위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6-3반 학생들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사건 경위서를 썼다.”는 진술에 비춰볼 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성폭력이 사실이라면 관련 내용의 사건 경위서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2022. 5. 11.경 눈감술과 관련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성폭력은 기술하지 않았다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성폭력이 사실이 아니거나 학생이 고의로 해당 성폭력은 기술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 중

누구도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성폭력을 언급하거나, 설문조사에 해당 성폭력을 기술하지 않은 점, 관련 사건 경위서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성폭력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학생 1.과 피해학생 2.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성폭력을 일관되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점과 더불어 위 관련 기록 자료 등을 볼 때, 피해학생 1.이 피해학생 2.를 성폭력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보여진다.

다음으로, 피신청인이 다른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공개적으로 ‘피해학생 1.이 피해학생 2.에게 성폭력 피해를 주었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는지 살펴보면, 피해학생 2.는 “피신청인이 남자애들 따로 불러가지고 제가 그런 짓을 당했다고 했는데, 그때 []가 (피신청인의 말을) 녹음했다”며, 피신청인이 남학생들과 면담하며 피해학생 2.가 피해학생 1.에게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해학생 2.의 보호자 또한 ‘피신청인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저한테 말했는데, 녹취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때 가서야 (피신청인이) 잘못했다고 말했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피해학생 2.는 피신청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이 제가 자기 편이라고 믿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라고 진술하여, 피해학생 2.가 피신청인을 위해 거짓 성폭력 피해자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남학생들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 1.이 피해학생 2.를 성폭력하였다고 허위로 발언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피해학생 1.과 2.에 대해 ‘성폭력’이라는 지극히 민감한 내용을 허위 사실로 주장하고,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여, 피해학생들에게 심각한 언어폭력, 정서적 폭력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한다.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성폭력에 대한 허위사실 발언 행위는 피해학생 1.과 2.에게 수치심, 분노감,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피해학생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피해학생들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3) 피해학생 1.에 대한 언어폭력과 따돌림에 대해

피신청인이 피해학생 1.에게 욕설, 폭언, 비하발언 등 언어폭력을 하고, 학급에서 본보기를 삼아 따돌림을 조장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피신청인은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신청요지 2)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추천한 참고인 여학생 4명’의 진술을 살펴보면, 피해학생 1.이 봉사를 제일 많이 당한 친구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피해학생 1.에 대한 피신청인의 행위 중 제일 심했던 게 피해학생 1.을 다른 학생과 떨어뜨려 무언가를 쓰게 하고, 사람이 없는 4학년 4반에 방치한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급식 먹으러 가야 되는데 저희 다 줄 서 있는데, 피해학생 1.을 혼내느라 계속 서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학생 1.의 피해 진술과 참고인 학생들의 진술, 설문조사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피해학생 1.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방치 및 따돌림 등의 폭력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신청인이 피해학생 1.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4) 학습권과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침해에 대해

위 인정사실의 4), 5), 6), 7)항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피신청인은 2022학년도 1학기경 6-3반 피해학생들에게 교과목 연간진도계획에 부합하지 않게 임의로 수업을 운영하며, 학생들에게 유튜브 영상을 보여주고 학생들에게 따라서 만들게 하는 미술활동 위주로 수업을 하였다.

또한, 학교가 2022. 7. 4.(월)경 해당 학급의 수업 진도를 확인한 결과, 전체 교과목의 진도를 1/2 가량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신청인은 수업 진도를 안 나가고 미술과목만 수업을 해서 진도가 다른 반들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것에 대해, 상해로 인해 코뼈가 부러지고 눈이 너무 아파 글자를 못 보니, 좀 나은 다음에 진도를 나가자고 학생들과 관리자에게 이야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주장과 달리 학교관리자인 교장선생님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으며, 심지어 ‘눈이 아픈 것도 몰랐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참고인들의 주장, 학교 설문, 학교 제출자료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피신청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신청인은 상해를 이유로 수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교사와 학교관리자는 학생의 수업 결손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마련했어야 한다.

아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25298 판결)로도 알 수 있듯이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교사의 특별한 사정이 학생의 학습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교원의 가르치는 권리를 수업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교원의 지위에서 생기는 학생에 대한 일차적인 교육상의 직무권한이지만 어디까지나 학생의 학습권 실현을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학생의 학습권은 교원의 수업권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다. 따라서 학생의 학습권이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교원의 수업권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학생의 학습권은 개개 교원들의 정상을 벗어난 행동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아울러, 피신청인은 “교사 교육과정에 의거해 수업했고, 교사의 자율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2022. 초등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전라북도교육청, 학교교육과)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시 주요 유의사항”은 아래 내용과 같다.

□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 주요 유의사항

- (기본방침)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핵심역량을 반영한 수업 운영, 성취기준 재구성 등을 통해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준수**
 - 각 교과와 기초·기본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학습되도록 교육과정 편성·운영
- ※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활용하되, 무리한 교과통합 등으로 각 교과와 기초·기본 요소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피신청인이 “교사 교육과정에 의거해 수업했고, 교사의 자율권이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년(급)에서 개발한 교육과정”, “성취기준 재구성”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나, 피신청인의 주장을 사실로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교사 교육과정에 의거해 수업했고, 교사의 자율권이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이에 더해, 피신청인은 미술수업을 유튜브 영상을 반복하여 보여주

고, 학생들이 따라하게 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이유를, “학급의 학생들이 만드는 영상을 사전에 보면서 방법을 익혀놔야, 짧은 수업시간에 효과적으로 작품을 수월하게 만들 수 있고, 수업이 더 유익해질 수 있다, 교사의 설명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 영상자료를 참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유튜브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는 있으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유튜브 영상을 반복 재생하고 학생들이 이를 보고 따라서 하도록 하는 방식은, 교사가 해야 할 수업을 유튜브 영상으로 대체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참고인 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독서록이나 과제에 대한 검사도 교사가 하지 않고, 학급의 회장단에게 검사를 시켰다.

한편, 해당 학교의 연간교육일정, 교과진도 운영계획, 학교교육과정 편성 운영 평가 계획을 살펴보면, 각 학년의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배당, 교육과정 편성 운영, 수업일수 및 시간 운영 계획, 연간 학사일정,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운영계획, 주요 교육활동 및 행사시간 편성, 교과전담시간 운영 계획이 정해져 있다.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 중 교과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살펴보면, ① 학교는 학생이 학년군 또는 학년별, 학기별로 이수해야 할 교과(군)를 편성하여 안내하고, ② 지역 및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교육적 요구와 필요, 전년도 교육과정 평가 및 분석 결과 등을 근거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기준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할 수 있으나, 단,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기준 수업 시수는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고, ③ 교과(군)별 시수를 증배할 경우 증배 시수 운영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축할 경우 교과 교육과정의 어느 일부분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내용을 재구성하여 모든 학생이 각 교과별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위에서 피신청인이 6월 27일(월)²⁾까지 6학년 전체교과목 진도를 1/2가량 밖에 진행하지 않은 점, 전체 수업시간의 절반 가량을 학생들에게 미술활동 유튜브 영상을 반복하여 보여주고 따라 하는 방식으로 수업한 점, 독서록이나 과제 검사를 학생들에게 대신하게 한 점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의 수업방식이 교사 교육과정이라는 주장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피신청인이 사실상 교사로서 자기 직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수업 운영 방식은 스스로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육계 내 동료 교사들의 권위와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서, 피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초등 교원의 품위와 자긍심을 크게 손상시켰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피신청인은 새로운 학기의 시작인 3월중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교실 청소를 시킨 이유를 ‘코로나 시기라는 특수성’과, “기본생활습관 형성 및 환경교육의 일환으로 청소활동을 했고, 호흡기, 피부 질환 등에 자주 노출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협동심과 자주성을 길러주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신청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합리적인 주장이기 위해서는, 수업 결손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청소 활동이어야 하며, 코로나 시기라는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해도 학생들이

2) ©초등학교 교원인사자문위원회(2022. 6. 27.) 개최일 기준

수업시간에 손소독제를 뿌리고 교실 바닥을 물티슈로 닦는 등의 청소를 해야만 하는 시급하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3월초에 전담수업시간을 제외한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킨 것 또한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한편, 피신청인은 일명 '봉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학생들이 지각을 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하는 경우에 '봉사'로서 청소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못하거나 일탈행위를 하는 경우, 교육 관련 법령에 근거하고 학교의 규칙과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고, 관련 절차에 따라 불이익한 처분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학교의 규칙·규정과는 상관없이 임의대로(학생들은 피신청인의 기분에 따라 봉사를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학생들의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가 명백하다.

5) 그밖의 권리 침해에 대해

위 인정사실 9), 10)항을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2월경에 얼굴(코 부위)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방학 중에 교사의 이사짐을 나르도록 하였는데, 4일 중 이들은 피신청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이들은 학생들이 교사의 이사짐을 나른 사실을 알 수 있다. 방학 중에 교사가 학생을 학교로 부를 때에는 교육적 목적이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학생과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에도 학생이 납득할 수 있는 사정이나

이유가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방학중인 4일 동안 학생들을 교육적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유로 학교로 불렀고, 그나마 이들은 학생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교사와 학생간의 위계관계가 명백한 점을 같이 살펴볼 때, 피해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³⁾과 휴식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일상적으로 학생들에게 택배 가져오기, 교사가 먹을 물 떠오기, 교사가 사용하는 컵 씻기, 교사가 사용할 생리대 얻어오기 등 사적 심부름을 시킨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이 다른 교사에게 줄 선물의 포장 재료를 학생들에게 사오게 하고 선물 포장을 시킨 사실이 있다. 당시, 선물을 포장한 학생들은 1주일 동안 어렵게 선물 포장을 했지만 결국 선물은 교실에 방치됐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교사라는 위계를 이용하여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휴식권 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참고인 학생들이 봉사, 청소에 대비하기 위해 “종이를 찢거나 지우개똥 만들어서, 그거 쓰려고 모아 놓았다. 미술 시간에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때 몰래 찢어서 (쓰레기가) 있는 척했다.”, “학교 끝나고 1시간 30분 동안 청소를 했다.”는 진술 등에 비춰볼 때도, 피신청인이 학교 규정에도 없는 벌칙을 남발하였다는 사실과 학생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 ‘봉사’라는 벌칙을 수행하기 위해 학교에 남아 청소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 또한 교사의 위계를 이용하여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휴식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한다.

이에 더해, 피신청인이 학생들에게 일상적인 사적 심부름을 시킨 행

3) 행복추구권에 포함되는 권리로 적극적으로 행동할 자유와 소극적으로는 행동하지 않을 자유

위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학생들에게 포켓몬 빵을 사오게 하고 정가를 넘는 금액으로 거래한 행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교사로서의 권위와 신뢰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피신청인은 담임을 맡은 반의 학생들이 교실에서 실내화를 신는 것을 제한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은 '코로나 시기'라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전라북도교육청과 해당 학교의 코로나 대응 방역 계획을 무시한 행위이며, 학생들에게 실내화를 신지 못하게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아울러, 학생들이 피신청인의 사적 심부름과 실내화를 못 신게 한 행위와 관련하여, “우리는 귀한 딸 아닌가요”, “내가 하녀도 아니고, 집에 일도 아니고 왜 나를 시키는지” 등과 같이 자조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인격 형성을 해나가는 중요한 시기의 피해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피해를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학교가 학교같지 않았다”는 진술 등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생님 구찌 신발인가 샤넬 같은 거 사물함에 열어 보면 딱 있고 선생님 뒤편에 사물함 또 있다. 거기에다가 선생님 신발이랑 명품 있음’, ‘저희 사물함이나 한 칸 더 늘려주시지, 자기 거 물건만 세 줄, 세 줄 아홉 칸임. 그리고 아래 세 칸에는 신발 같은 걸로 있음’과 같이 진술한 것을 보아, 학생들에게 학급의 교실은 학생들이 수업하는 공적 공간이 아닌, 피신청인의 사적 공간으로 비쳤을 개연성도 있어 피신청인의 학급 운영 방식은 학생들에게 매우 비교육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6) 피해학생들의 2차 피해에 대해

[JBEdU 메신저 발송 내용 중 일부]

A초 선생님께서 6학년 여학생이 성희롱성 욕을 같은 반 남학생들에게 들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담임교사에게 신고하였습니다. 담임교사는 남학생들에게 성폭력은 처벌 수위가 높은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격분한 한 남학생의 어머니가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아들을 성범죄자 취급했다고 소리를 지르며 학교장에게 담임교체를 요구해서 담임교체를 당하고 심지어 휴직까지 요구했습니다.

그 담임선생님은 민원인이 요구해서 공개사과문을 반 학생들 앞에서 읽도록 요구하였고 겁에 질린 선생님은 담임 반 학생들 앞에서 사과문까지 읽으셨습니다.

선생님이 담임교체만 당하고 휴직을 하지 않자 민원인은 담임교사를 전북학생인권센터에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신고하고 아동학대로 경찰서에 고소까지 했습니다.

경찰서에서의 결과는 "불송치(혐의 없음)"으로 판단이 나왔습니다.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의 판단도 "혐의 없음"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위 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옹호한 교사노조의 위원장은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임에도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담긴, 사실이 아닌 정보를 해당 피해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나 의견도 구하지 않고, JBEdU 메신저를 통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복무하는 교사들에게 일괄 발송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조사중인 사안의 내용을 언급하고, 나아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히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주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피신청인은 차치하더라도 전북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학교 현장의 전체 교사들에게 위 내용의 메시지를 유포하여 피해학생에게 치유되기 어려운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킨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

므로, 피해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피해회복 조치와 더불어 관련자들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 2차 피해를 가한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처분 등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7) 피신청인의 조사 지연 행위에 대해

2022. 6. 28.(화) 구제신청이 접수 이후, 조사과정에서 피신청인은 같은 해, 9. 2.(금), 9. 7.(수), 9. 22.(목) 세차례 면담(문답)조사 일정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며, 2022. 9. 14.(수) 공문으로 발송한 '서면 질의서'에 따른 답변서도 기한(9. 19.) 내 제출하지 않다가 9. 27.(화) 전자우편으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신청인은 여러 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으며, 조사중인 사안을 언론에 유포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학생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 입힌 사실이 있다.

피신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50조(조사) 제3항(교직원과 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자료 요구와 질의, 제2의 현장 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8) 결론

피신청인이 피해학생들의 학습권,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휴식권, 건강권 등을 침해한 행위의 양태는 학교 현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다층적이라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성폭력 가·피해자로 잘못 알려진 피해학생 1.과 피해학생 2.가 겪은 고통과 2차 피해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워 보여, 피해학생 1.과 피해학생 2.의 피해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아울러, 피신청인의 학생인권 침해 행위와 학급 운영 방식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신청인이 교사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신분상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5.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9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2. 10. 17.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조 기 영 (인)

[붙임 1]

관련 법령

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제13조(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②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4조(교원) ① 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②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원은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0조(교직원의 임무)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

제23조(교육과정 등) ①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속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④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43조(교과) ①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조(학생의 인권 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만 제한될 수 있으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 한다.

③ 학생의 개성과 자율성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인권옹호관의 직무) ① 인권옹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 상담
2.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에 대한 조사와 직권조사
3.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과 조치 요구
4. 학생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 등의 연구·개발
5. 학생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에 대한 공포
7. 학생인권교육
8. 그 밖에 위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업무

제4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① 학생이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제신청을 받은 인권옹호관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후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 등에 대한 시정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옹호관은 그 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1. 제삼자가 한 조사청구에 대해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조사나 상담이 청구될 당시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3. 조사청구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4. 그 밖에 인권옹호관이 상담 및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④ 인권옹호관이 제2항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⑤ 인권옹호관으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와 교직원 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인권옹호관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권옹호관의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마.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

제19조(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 ③ 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각 할 수 있다.

1. 조사결과 구제신청 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결과 구제신청 내용이 조례상의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는 등의 사유로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붙임 2]

학생 설문

1. 욕설, 폭언, 차별·비하 발언 관련

- (5학년때 반 같음) 4~5월 쯤 무슨 일 있어서 선생님이 애들 부르다가 들은 이야기 A가 선생님한테 불려갔을 때 B가 선생님이 남자애들을 성추행범이라고 몰고간다고(그중에 제일 충격적인 건 누가 A 보지 찢어버린다고) 근데 A는 들은 적도 없고 당한 적도 없다고 했다.
- 6월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연습하다가 선생님이 운동신경도 없으면서 피구, 배구 왜 하냐고 투호나 연습하라고 했다.
- 가끔 선생님이 남녀차별을 하는 걸 느꼈다.
- 다른 애들이 잘못해도 회장, 전교회장을 탓한다.
- 그리고 수업진도를 안 나가서 5학년 때도 다 못하고 끝났다.
- 작년 8월 선생님이 저만 따로 불러 말이 많으니 주먹질을 하면서 닥쳐라,라고 하신 적이 있다.
- 이번 년도 6월에는 체육대회 투호를 연습하는데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을 비난하며 너네가 나를 병신으로 만든다라고 하신 적이 있다.
- 그전에는 5월쯤에 포켓몬 빵을 다른 친구들이 선생님께 주면 선생님이 2배의 돈을 주신 적도 있습니다.
- 저에게 이중인격자라고 하신 적도 있다.
- 있지도 않은 일을 제게 말하고 제가 다른 아이들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가슴이 만져졌다. 애들에게 보지를 찢어버린다라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선생님께서 소문을 내셨다.
- 다른 애한테는 겨울에 패딩을 입지 말라고 하신 적도 있습니다.
- 한 친구가 심장이 안 좋은데 그걸 다른 아이들에게 소문을 내고 다 말했다.
- 자신의 불만을 학생들에게 화를 내며 화풀이하셨습니다.
- □□□에게 5~6월경에 욕설을 하였다.

- ◇◇◇에게는 모욕적인 발언과 함께 기분이 나쁠 수 있는 행동을 지시했다.
- 오◁◁와 ㅎㅎㅎ 등에게 4월경 “그러니까 내가 나쁜 년이니까 너네가 이해하라”는 등의 이상한 말을 하였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신이 “나쁜년”, “도른년”이라 칭했다.
- 다른 학년과 비교하는 말과 욕설을 함.
- 체육대회에서 무조건 지라고 하였다. 체육대회 준비로 체육선생님이 꼭 이기라고 덕담을 해주셨는데 선생님은 다 저주라고 하였으며, 싫다하니 누가 담임이냐고 소리를 질렀다.
- 체육대회 준비서 ㅁㅁㅁ에게 너랑 나랑 병신 ***** 말했다.
- 4월, 5월쯤에 △△△ 선생님이 친구에게 니가 나 병신 만드는 거야라고 말했다.
- 중요한 일을 까먹었을 때 생각이 있냐, 와, 그런 말을 했다.
- 3월부터는 실내화를 벗고 양말로 반을 다녔다.
- 6월 3일 체육대회를 하는데 배구할 때 서브 실수하면 뭐라고 했다.
- 6월 20일 교감선생님께 찾아가 있었던 일을 말했다. 그랬더니 그날 선생님이 나오는 길에 만나서 선생님이 불러서 따라갔다가 40분 정도 선생님에게 혼났다. 그래서 배드민턴 방과후에 못 갔다.
- 선생님이 기분이 좋을 땐 좋은 말로 봉사라고 하거나 봐주는데 자신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봉사! 이렇게 말한다. 회장단처럼 높은 직급을 가진 애들에게는 더 큰 말투로 말한다.
- 선생님이 5교시 시작하는 종이 치고 약 1분 지나서 같은 반 친구가 들어왔는데 왜 늦었냐면서 화냈습니다.
- 2주전 쯤에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선생님이 마음대로 짤을 정해 몇몇 애들이 교장 선생님한테 항의했다.
- 학교 끝나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애들 데리고(이때 여자애하고 다른 애들하고 부딪혀서 싸웠음) 와서 남자애들은 성추행범이라고 했다는 걸 들었다.
- 반 친구가 남부회장인데 여부회장과 회장만 시키고 남부회장은 시키지 않음.
- 여자들한테 잘해주는데 남자애들한테는 조금만 잘못해도 화를 냈음.

- 제가 학교상담실에 고민이 있어서 갔었어요. 다음날인가 지나서 선생님이 전담할 때 줄 세우시면서 저한테 그 애들 앞에서 제가 상담했던 걸 말했어요. 그리고 그 상담 받은 날 제가 그날 남아서 만들 게 있어서 몇몇 애들이랑 남았는데 무슨 얘기할 때 제가 상담실 갔다는 걸 말했어요. 선생님 상담실 가는 것도 중독이라면서 저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 그 친구가 관련이 없는데 갑자기 그 친구한테 화를 냈다.
- 선생님이 먹을 물과 컵을 저희보고 씻고 물 떠오라고 거의 매일 시킴.
- 여자 남자 차별이 너무 심하다.
- 선생님이 기분 좋을 때는 저희한테 착하게 말하면서 기분이 나쁘면 저희한테 화풀이를 했습니다.
- 한 친구가 칠판에 독서록 쪽수를 썼는데 갑자기 저한테 왜 이렇게 썼냐고 혼내면서 봉사라고 했는데 다른 애가 썼다고 하니깐 봉사는 취소하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
- 봄에 선생님이 애들 한 명 따로 따로 불러서 일부러 겁을 주고 나한테는 불러서 엄청 화를 내고 선생님이 난 명예훼손 이런 거 말하지도 않았는데 선생님이 너가 나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이렇게 큰소리 치고 친구 엄마한테도 말했다며 이렇게 화를 냈다. 난 한 적이 없다.
- 봄쯤에 여자애랑 다뤘는데 그때부터 선생님이 나한테 엄청 화내고 내 친구한테는 아니 쌍 이렇게 화를 내고, 야 너 죽을래 너 미쳤니, 이렇게 화내고 손찌검하고 욕설 등등 하고 나한테는 여자애 엄마한테 전화오면 니가 혼날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하고, 야 이렇게 큰소리 냈다.
- 체육대회 때 선생님 화를 냈고 체육대회 때 화낸 거 말한 거 너지 이렇게 큰소리 쳤다.
- 난 명예훼손 말한 적 없는데 선생님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수 있다면서 이렇게 화내고 친구 엄마한테도 말한 건 너지 이렇게 화내고 난 한 적이 없는데, 엄청 화를 냈다. 그리고 손찌검 등등 했습니다.
- 2022 5월 달쯤 곧 있을 체육대회를 위해 선생님의 지시로 투호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뒤에 있던 친구가 저에게 무언가를 물어봤습니다(조용

히). 그래서 저는 속닥거리는 말로 2마디를 말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다른 애들도 떠들었는데 저에게만 혼을 냈습니다.(그때 당시, 현재 전교회장을 맡고 있는 중입니다) 뭐라고 선생님이 혼을 냈냐면 “000, 지금 뭐 해? 너가 모범을 보여야지! 그러다가 체육대회 때 1개도 못 넣으면 어쩔 거야? 다른 선생님들이 나 놀려! 너가 나 병신 만들었어!! 빨리 제대로 합니다”라고 저에게 혼을 냈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 체육대회가 끝난 후에도 피구경기를 한 여자애들에게 2반 애들 이길 수 있었는데 왜 못 이겼냐고 뭐라고 하였습니다.(2반과 연습경기할 때 이겼었음)
- 체육대회 준비 중에 남자애들은 배구를 하기로 하였는데 저는 예전부터 서브를 못 했습니다. 근데 연습경기 때 제가 서브 실수를 하자 선생님이 체육선생님께 부탁을 해서 강제로 서브 연습을 시켰습니다.
- 어떤 남자애가 장난을 쳤는데 심한 장난도 아닌데 “이 ××(이름) 머리가 돌아가?” (아직 쓰지 못한 게 매우 많습니다. 그치만 기억이 잘 안 나거나 쓸 시간이 없어 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선생님이 전교회장인 ㄹㄹ에게 병×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 2022년 4월에 급식실에서 아무 이유없이 구석에서 미쳤냐는 말을 들었다.
- 2022년 6월 20일 9시 20분 빈 교실에서 죽을래? 이것들이 쌍 등에 말과 협박을 당했다.
- 2022년 봄~여름 사이, 선생님이 욕설 조금, 차별·비하 발언을 다른 학생에게 말하는 것을 보았다. 긴장되었다. 약간 무서웠다. 욕설은 생각이 나지 않고 다른 학생과 비교하며 혼내는 것을 보았다.
- 수학 시간에 제가 수학을 잘못하는데 그런 걸 배려하지 않고 수학을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학을 못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미술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수업 시간이 많이 늦춰졌습니다.
- 남자들만 복도 청소하거나 남자랑 여자랑 똑같이 떠들어도 남자만 혼내거나 그랬다.
- 샘이 □□□ 학생에게 크게 잘못된 것도 아닌데 남아서 폭언, 욕설했다.
- 선생님이 □□□이랑 반장부한테 주로 혼을 많이 내었다. 봄 4월~6월 중 그

사이부터.

- △△△ 선생님이 나한테 머리가 돌아가냐고 했다.
- 친구한테 ‘네가 날 병신으로 만들 거야?’라고 했다. 무서웠다.
- 5월에 배구 연습경기를 했는데 친구가 서브를 넣다가 실수로 서브를 잘못 넣어서 네트를 못 넘겼는데 경기가 끝나고 반으로 돌아와서 친구에게 ‘네가 날 병신 만든 거예요.’ 이랬다.
- 며칠 후 다른 친구에게 회장단끼리 하는 일이 있는데 나 빼고 다른 남자애들 활동을 했다.
- 6월 체육대회 때 전교 회장이 서브를 못 넘긴다고 연습하라고 혼냈다.
- 아침에 떠들면 안 되는데 친구가 물어본 것을 대답해주는데 선생님이 저를 보고 계셨고, 왜 내 목소리밖에 안 들리냐고 혼내고, 선생님이 질문할 때 잘 안 들려서 “예?”라고 말했는데 그 말투 좀 고치라고 혼냈다.
- 쌤은 우리에게 감정 쓰레기통이었다.
- 6월달에 체육대회가 있어서 투호 종목을 연습하는데 애들이 조금 장난을 쳤는데 장난을 친 애들을 혼내다가 전교 회장을 혼내면서 너희가 나를 병신 만들었다고 말했다.
- 5월달에 포켓몬 빵이 유행하던 때 포켓몬 빵을 선생님께 사다 주면 2배로 돈을 줬다.
- 애들이 선생님 폭로하러 교무실 갔다가 다 얘기 끝나고 말했던 애 중에 2명 데리고 가서 교실에서 말한 녹음파일에 애네가 성추행했다고 말했고, 친구가 심장이 안 좋은데 그걸 다른 애들 앞에서 ‘~이가 심장 안 좋아서 못 온다’라고 하고, 선생님이 좀 잘못된 상황인데 ‘OO야 빠졌어?’라고 했다.
- 애들 앞에서 큰소리로 친구가 상담한 내용을 말했다.
- 선생님의 불만, 티브이, 교실 바닥, 칠판 이런 거나 자기가 생각하기에 잘못되어 보이는 거를 다 학생들한테 표출했다.
- 5학년 겨울에 선생님이랑 친한 선생님한테 선물을 준다고 친구랑 저랑 선생님 카드로 다이소에서 상자 사와서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한테 줄 나랑 친구 둘이서 만들어 개학하고 몇 개월 동안 안주고 반에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이 미

술하는 분이라 반에 짐이 엄청 많은데 개학 이틀 전에 불러서 짐 계속 옮기고 선생님은 코빼 뿌러져서 앉아있고 남자쌤 1명이랑 친구들 3명, 나까지 해서 짐을 옮겼다.

- 선생님이 6월에 체육대회가 열렸는데 선생님이 우리 반은 못 할 것이라는 말투로 패어플레이상이나 받자고 말씀하셔서 뭔가 기분이 나빴다.
- 선생님이 회장단이 필요할 때 남 부회장만 빼고 거의 부르셔서 차별이라고 나는 느꼈다.

2. 별 관련

- 선생님은 별을 봉사(반 청소)로 준다. 원래는 하루 심하면 1주일~한 달 특하면 봉사다. 5학년 때는 C가 얼음 먹었다고 봉사당했다. 그리고 겨울날 D가 추워서 패딩 입었는데 봉사당했다.
- 말을 안 들었다고 쓰레기 1,000개를 줍고 가라고 하셔서 방과후 한 개를 빼고 청소를 다하고 검사를 받고 갔습니다. 그리고 등교할 때 청소하고 점심 먹고 청소하고 하교하고 청소하고를 5학년 끝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 조금 지각을 했다는 이유로 약간의 기분 나쁜 말과 청소를 시켰다(아이들 대부분)
- 실내화를 벗지 않았다는 이유로 3주 청소를 하였다(□□□)
- 미술시간에 그린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앞에서 1학년과 비교하며 그림을 다 떼버리고 다시 하게 만들었다.
- 지각을 하면 1번 할 때마다 1번씩 봉사하고, 그리고 친구와 다툼을 하면 1주~1달 정도 봉사를 한다.
- 8시 50분을 넘어서 들어오면 교실에 남아서 교실 청소를 함. 또 친구들과 싸우면 1주 동안 청소를 했다 크게 싸우면 1달 동안 청소함.
- 회장단한테 너무 많이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리고 선생님 말한 걸 잘못하면 그것도 잘못하냐는 식으로 말씀하셨다.
- 선생님은 힐같은 거나 슬리퍼 신었는데 저희는 반에서 맨발로 다녔어요. 그리

고 선생님이 향수를 많이 뿌려서 머리가 아팠어요.

- 수업진도 안 나가고 미술활동만 많이 시켰다.
- 여자애랑 다투서 사과하고 끝냈는데 선생님이 나를 불러서 여자애 엄마한테 전화오면 어떡할 거야 큰소리 치고. 나는 그때 너무 무서워 학교 오기도 무서웠고
- 나랑 친구 2명 있었는데 선생님이 야 너 내가 개랑 놀지 말라했지 그러면서 엄청 친한 친구랑 떼어놓으려고 선생님이 개랑 붙어있으면 엄청 화를 냈고 난 그때 친구 2명을 잃는 줄 알았고 무서웠다.
- 선생님 여자라 그런지 남자애들을 차별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애들이 살짝 장난을 치면 그냥 “다음부터 그러지 마세요~”그리고 넘어가는데 남자애들이 장난을 살짝만 쳐도 무조건 봉사(학교 끝나고 교실을 청소하는 것)를 시킵니다. 정말 부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봄에, 선생님이 없을 때 떠들면서 장난쳐서 반성문을 썼다.
- 2022년 4월, 5월, 전담, 급식줄 맨 뒤로 서게 하기,
- 학교 남겨서 봉사시키기
- 전담수업마다 반에 남아 있었다.
- 2022년 5월 ㅁㅁ에게 너가 나 병신 만들었다라는 말을 한 걸 들었다.
- 지각하거나 선생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벌은 봉사(남아서 청소) - 3.2~6.까지 아무 때나
-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읽은 책을 실수로 책상에 놔뒀는데 선생님이 그걸로 저에게 학교 시간에 남아서 청소하라고 하셨다.
- 리코더 부는 시간에 뺑사리 한 번 냈다고 봉사라고 하였다. 제가 뺑사리 했을 때 웃은 친구도 봉사라고 하였다.
- 줄을 쳤는데 자리가 좁아서 팔을 안쪽으로 구부리고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청소를 시키거나 조용히 있어도 조용히 하라면서 혼냈다.(언제인지 모름)
- 다른 애들이 떠들어도 전교 회장에게 뭐라고 했다.
- 3월 중반쯤 체육 시간에 내가 실수로 친구를 원반으로 쳤는데 쌤이 그 친구한테 사과하라 하면 될 것을 그 친구 부모님에게까지 전화하라 했다.

- 선생님이 벌을 줄 때 봉사를 했다. 봉사는 학교가 끝나고 반을 청소하고 가면 됐습니다.
- 학교 늦게 왔다고 당번시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당번시키고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경위 조사서를 쓰고 했다.
- 학교 끝나고 1시간 30분 동안 나 혼자 청소했다.
- 친구한테 ‘발목을 부러뜨려라’라고 했다.
- 5학년 때 친구가 있었는데 뭘 조금 잘못했는데 맨날 남겨서 봉사시켰다.
- 다른 친구가 있었는데 반에 남겨놓고 아무 이유 없이 1시간 30분 동안 청소를 시켰다.
- 수업 시간에 리코더 시간이라서 리코더 불고 있었는데 애들 몇 명만 1시간 동안 청소를 시켰다.
- 3월 둘째 주 사회 빙고 시간에 전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야 3 빙고가 되는 순간에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나이스라고 했고 학교 끝나고 봉사를 했다.
- 음악 시간에 리코더 부는 시간인데 친구가 약간의 뻑소리를 내서 웃었는데 샘이 봉사를 하라고 했다. 너무 억울했다.
- 글로 설명할 수 없음.
- 선생님이 전교 회장이 우리 반에 있는데 항상 선생님이 다른 애들이 잘못해도 ‘전교 회장이 모범을 보여야죠’라고 그랬었다.
- 선생님께는 맞지도 않고 잘 혼나지 않았습시다.
- 선생님께서는 때리지도 않으셨지만, 혼나는 것으로는 학교 청소밖에 없었습니다.
- 만약 크게 잘못하면 선생님과 면담하고 학교 청소 일주일이나 이 주일 정도 했습니다.

3. 학교생활에서 불편, 부당, 불만족 관련

- 학교가 오기가 싫고 불편하고 선생님은 보고 싶지 않았습시다.
- 교실 내에서 실내화를 신지 못하게 함(또한 다른 실내화 지급 ×)

-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따로 불러서 혼냄 또한 2주 봉사령을 내림.
- 무리한 독서록 작성을 강요하여 다하지 못했을 경우 칠판에 이름을 적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줌.
- 수업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며 미술만 시킴.
- 자신의 필요한 생리대를 나한테 빌려오라 시킴.
- 수업진도를 나가지 않고 미술만 했다.
- 졸업사진을 우리 마음대로 찍을 지을 수 없었다.
- 남자는 화풀이, 여자는 노예이다.
- 단체 졸업사진을 찍을 때 선생님과 찍어야 하는데 선생님이 약 5~ 15분 동안 안 나와서 땀별에 계속 있었음.
- 선생님이 엄청 화낸 거도 있고 부모님 통화하는 거 보면 어 네 어머니 이렇게 하고 우리한테는 봉사 이렇게 하고 엄청 화내고 내 친구나 회장단 이렇게 피해를 봤다.
- 2022학년도 1학기 개학 2일 전에(작년에도 그 선생님과 같은 반이었음) 선생님이 반을 현재의 반(6-3)으로 반을 바꿔 짐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원래 업체를 불러서 옮기는데 학생 몇 명을 불러서 짐을 옮기게 시켰습니다. 4시간 동안 힘들게 옮겼습니다. 정리도 모두 저와 친구들이 했습니다.
- 선생님이 정색하면서 뭐만 하면 봉사하라고 하고 다른 반 분위기는 활발하고 좋은 것 같은데 우리 반은 분위기가 다운돼 있고 좀 불편했다.
- 선생님이 너무 싫었었다. 차별이 있고 선생님 마음대로 했었다. 진도도 잘 안 나갔다.
- 하교를 2시 40분에 하는데 2시 46분이나 2시 44분 정도에 보내준 적이 많다.
- 쌤이 바뀌기 전에 전 쌤은 수업을 안 했었다.
- 선생님이 친구나 나한테 욕을 한 거, 청소, 경위 조사서, 독서록
- 선생님이 뭐 할 때마다 짜려보면서 쳐다봤다.
- 가만히 있어도 선생님 기분이 안 좋으면 봉사를 시켰다.
- 가만히 있다가 친구랑 놀고 있으면(싸운 거 아님) 경위 조사서를 썼다.
- 뭐 안 하면 욕을 했다.

- 3월 실내화를 반에서 못 신게 한 것
- 4월 현장 체험 학습 날 옷을 자유롭게 못 입게 한 것
- 수업 진도를 안 나간 것
- 5월 체육대회 때 상대 팀한테 지라고 한 거
- 수업 진도를 나가지 않고, 미술만 항상 했다.
- 학교 오기 불편함, 학교에 선생님이 올 때 오늘은 누가 찍힐지, 혼날지 생각했다.
- 반 봉사를 많이 한다는 것(잘못했을 경우, 지각했을 경우, 1일, 2일, 3일 4일, 5일, 1주일, 2주일, 3주일, 한 달 봉사)
- 지각했을 경우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 기분 좋은 날은 약하게, 기분 안 좋은 날은 안 좋게 대하셨다.
- 그다음 수업 진도를 거의 잘나가지 않고, 거의 미술 활동만 했다.
- 욕 듣기, 봉사, 부조리, 선생님의 부조리, 친구들과 떼어놓기, 공개적으로 비판, 놀림, 헐박, 거짓 사과, 뒷담 때문에 학교가 오기 싫고 죽고 싶었어요.
- 선생님이 해코지 할까 봐 무서웠어요.
- 반회장단 투표 조작
- 여러 남자아이들이 말도 안 듣고 욕하고 서열 정리하면서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게 많이 불편하다.